

軍心 다독인 이준석, TK 달려간 나경원, 여의도 누빈 주호영

국민의힘 전당대회 D-1

당권주자들 막판 표심잡기 경쟁

국민의힘 6·11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9일 일반시민 여론조사 및 당원 ARS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당권주자들의 막판 표심잡기 경쟁이 뜨겁다. 이번 전당대회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시민 여론조사 30%로 이뤄진다. 시민 여론 조사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각각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반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같은 기간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원 대상 ARS 투표도 진행된다. 지난 7~8일 실시한 모바일 사전투표 결과와 합산해 최종 당원 득표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일(11일) 정견발표는 표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됐다. 후보들은 남은 이틀 표심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각자만의 강점을 부각하거나 주요 지지 기반을 집중 공략한다는 각오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진영의 핵심 의제인 안보를 내세웠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가족들의 시위현장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생존장병들과 대화를 나누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당대표에 당선되면 첫 행보로 전직 대통령들을 안장한 서울현충원을 방문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대전 현충원을 가장 먼저 찾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해교전 등에서 희생된 분들이 있는 대전도 우열을 가릴 수 없게 중요한 공간"이라며 "새로운 변화

를 만들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군장병에 대한 예우를 통해 본인의 최대 지지기반인 20·30세대와의 공감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의 키워드인 '변화'를 부각하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나경원 후보는 종일 서울과 대구, 포항을 오가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했다. 선거운동이 중반전을 향하면서 '이준석 리스크'에 대항하는 당원 표심이 집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른바 TK(대구·경북) 여론에 승부수를 거는 모습이다. 나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가야 하는 길과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불안 때문에 이제 당력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빅3' 중 유일 현역 의원인 주호영 후보는 홈그라운드인 여의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표밭을 다졌다. 조직력만큼은 밀리지 않는다고 보고 대의원 조직의 핵심인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에게 전화·문자유세에도 부지런히 나서는 모습이다. 주 후보는 회견에서 "시중에 흘러 다니는 여론조사 결과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면서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신중한 판단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당권지지도 이준석 48%, 나경원 17%, 주호영 7%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도는 48.2%였다.

2위인 나경원 후보(16.9%)와는 31.3%포인트 차이다. 나 후보 다음으로는 주호영 후보(7.1%), 홍문표 후보(3.1%), 조경태 후보(2.3%) 순이었다. '잘모름'·'무응답'은 22.4%였다. 여론 지지자를 제외하고 응답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602명으로 한정하며 이 후보의 지지도는 50.9%까지 올라갔다.

이 경우 나 후보는 19.7%, 주 후보는 7.0%, 홍 후보는 3.4%, 조 후보는 1.5%의 지지도를 보였다. '잘모름'·'무응답'은 17.5%였다. 국민의힘은 본 경선에서 국민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70%를 각각 반영해 합산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본 경선 틀대로 환산하면 나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이 후보를 16.2%포인트차이 이상으로 앞서야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 기대 다 알아... 좀 지켜봐주시기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9일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며 "좀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남산예장공원에 문을 연 우당 기념관 개관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전 총장이 공개 장소에서 자신의 정치행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이 거론한 '국민의 기대와 염려'는 자신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지지층의 기대감, 그럼에도 대권 도전 선언이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놓고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한 피로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묻자 "그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 장소에) 나타났는데"라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행사 참석이 사실상의 대권 행보인지,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지, 장모와 부인의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각종 현안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기념관을 둘러보는 도중 동행한 기자들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요구하자 "오늘은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날이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켜보시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오늘은 여기 손님으로 온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화하는 윤석열-이종찬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관식에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후손인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9일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애플리케이션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의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사업자가 국회 과방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콘텐츠산업 진흥은 문제부 소관인 만큼 콘텐츠사업자 보호를 위해 문제위에서 소관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9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이행에 대한 통지 등의 특례를 신설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 금지 요청,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생계난을 고려해, 긴급지원의 지급기



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 제21조의6을 신설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청구 이행 및 집행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이 되도록 조치했다. 이 의원은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제재는 현실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대체할 수단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보건취약지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9일 지역보건취약지역에 국립대병원 분원을 설치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시설의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급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돕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농어촌에서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



도 빈번하다. 신속한 진료에 필요한 응급환자가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자가 많고 농기계 및 농약사고가 잦은 농어촌 지역에 국가 지정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다면 치료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귀농·귀촌인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나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상가매매 (상무지구)

- 1)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 8천만원**
- 2)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 2천만원)
-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장성토지 (분양매매)

광주에서 **20분(도로점)**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 1) 100평 → 8천
- 2) 150평 → 1억 1천
- 3) 300평 → 2억

총 1,778평 → 9억(용 4억 가능)

(주택, 주말농장, 창고, 투자 적합)

062-382-5500